

이웃과 멀어진 코로나 시대... 소득 줄고, 음식 소비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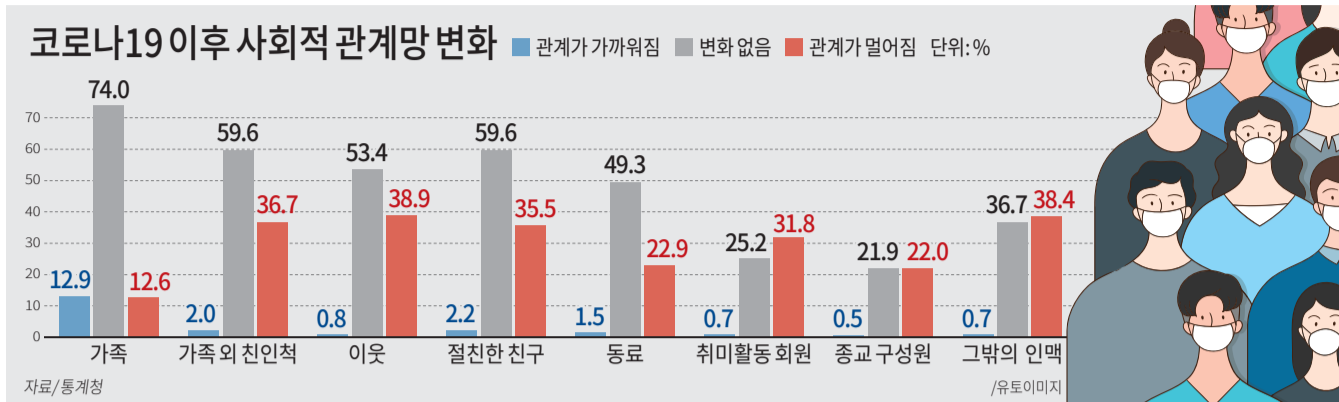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가구소득 감소 32%, 증가는 13%
35%는 친인척 등과 관계 멀어져
손씻기 등 위생강화에 92% 긍정적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소득을 대출로 매워 가게 빛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가구도 많았다.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이후 친구나 동료, 이웃 등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고 답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부문이 한 시적으로 추가됐다. 조사는 지난 5월 12~27일 진행됐고, 표본 규모는 응답자 기준 1만8496가구 내 3만6423명이었다.

19세 이상 가구주 중 코로나19로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32.1%인 반면, 증가했다는 답변은 13.1%에 그쳤다. 연령층별로 보면 40~50대에서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 생활로 벌어들인 소



득보다 자녀 양육, 교육 등으로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대출 등 가구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자도 올해 26.2%로 2년 전(20.4%)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는 집에서 지내는 가족을 제외한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5%가 친인척, 이웃, 절친한 친구의 경우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이웃'(38.9%), '가족 외 친인척'(36.7%), '절친한 친구'(35.5%)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가족간 관계가 가까워졌

다는 응답은 12.9%, 가족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은 12.7%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미활동 단체 회원, 종교단체 구성원, 그 밖의 알고 있는 사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5.3%는 친목·사교 모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일상과 소비 생활도 바꿔놓았다.

소비 생활의 경우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가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소비'(25.9%), '집에서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7.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일상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응답자 대다수(91.9%)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위생 활동 강화'로 답했다. 반면, 절반 가량(50.5%)이 '온라인 학습 확산'을 부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코로나19이후 일상 생활의 변화로는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 증가'(22.8%), '여가·취미 문화 발달'(16.6%), '온라인 학습·재택근무의 확산'(14.8%) 등으로 답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재택근무를 직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34.6%)과 사무직(29.3%)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8.7%), 기능 노동자(3.5%)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43.2%였다. 절반인 50.2%가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란 점을 이유로 꼽았고,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져서'(16.4%), '가사·육아 등으로 사실 상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근로층인 30~50대에서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 수업을 대체하는 원격수업을 받은 사람은 92.0%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7%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교의 원격수업 환경 미비'(20.9%), '수업 내용·구성 미흡'(19.0%), '학습에 집중할 수 없음'(18.2%)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네이버 차기 CEO에 '81년생' 최수연 책임리더

하버드 로스쿨 출신 '예고된 교체'
8개 사내독립기업 분사 선봉 기대
새 CFO에 김남선 책임리더 내정

네이버가 6대 CEO(전문경영인)로 최수연 글로벌 책임리더를 내정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첫 MZ세대 여성 최고 경영자(CEO) 체제를 가동하며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1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수연 글로벌사업지원부 책임리더

를 차기 대표로 내정했다.

앞서 네이버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회사 안팎에서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었다. 이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계진 글로벌투자책임(GIO) 역시 직원들에게 "더 젊고 새로운 리더들이 회사를 이끄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1981년생으로 하버드로

스쿨 출신으로 실력이 출중해 이 GIO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네이버 비동기 임원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예고된 리더십 교체다.

네이버 안팎에서는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8개 사내독립기업(CIC)을 분사시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대표의 주 전공 분야가 기업간 인수합병"이라며 "현 CIC들을 단계적으로 다 독립시키고 네이

버는 지주사 형태로 가는 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새 CFO(최고재무책임자)로는 김남선 투자·글로벌 인수합병(M&A)전담 조직 책임리더가 내정됐다. 김 책임리더는 1978년생으로 M&A 전문가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로펌 근무를 거쳐 모건스탠리, 맥쿼리자산운용 등 투자 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20년 영입된 김 책임리더는 그간 네이버가 진행한 굵직한 해외투자 및 M&A를 총괄하며 법무문제 뿐만 아니라 투자실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것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내정자. /네이버

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이계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앞서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던 '젊은 리더'와 '글로벌 사업 강화'에 맞춘 세대 교체란 평가가 나온다.

/강준혁 기자 junhyuk@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최태원, SK실트론 인수 의혹 직접 소명

내달 15일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해명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법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할지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다.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7년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사익 편취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월 이와 함께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 인수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스

취득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혜가 아닌 정당한 절차로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

최 회장은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회의에 이같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총수가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도 일정을 8일에서 15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재용 기자 juk@